미래를 위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에스티엠㈜ 황하원 프로

글·사진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지역본부 박민승 사내기자

각종 유해·위험요소가 도사리는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다. 에스티엠은 안전경영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갖추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안전한 일터를 목표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황하원 프로가 존재한다. 임직원의 든든한 서포터로서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노동자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황하원 프로를 만났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전념

삼성SDI 자회사인 에스티엠은 지난 10년간 초격차 기술력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달려왔다. 주력 사업으로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양극활물질을 생산한다. 양극활물질은 배터리 충전 시 음극으로 리튬이온을 제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활성물질이다. 세계적으로 IT 기기, 전기차 수요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에스티엠은 어느덧 약 250명의 직원을 갖춘 사업장이 되었다.

주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취급하기에 분진이 상시 발생하는데, 직원들을 위해 현장의 작업환경관리를 도맡아 하는 것이 안전관리자인 황하원 프로의 역할이다. 어느덧 입사 4년 차를 맞이한 그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일했던 현장 경험을 살려 이곳에 입사했다. 안전뿐 아니라 보건 관련 업무까지 도맡다 보니 산업보건에 관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보건관리위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화재안전훈련을 시행해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및 비상사태 시나리오 훈련을 진행했다.

안전한 현장을 위한 주안점, 작업환경관리

황하원 프로가 여러 유해인자 중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분진에 대한 작업환경관리이다. 더군다나 니켈(불용성)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됐기에 작업자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업장 내 쾌적한

이달의 한마디

안전보건활동은 노동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STM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거나
관련 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를 조성하려면 오염된 공기를 작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환기 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에스티엠은 국소배기장치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소배기장치는 유해물질이 작업장 내 확산하거나, 노동자에게 노출되기 전 유해물질을 제거 및 배출하는 장치이다.

"매일 현장을 순회하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국소배기장치 점검입니다. 후드와 덕트의 오염 및 외관 파손, 꼬임 등의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 국소배기장치의 제어 풍속이 적정한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공학적으로 관리하려면 제거 및 대체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장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 보니 환기를 통하여 오염원을 제어하고 있다. 회사는 주요 설비 구조물 변경·개조·증설 등으로 인해 국소배기장치가 필요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시로 작성하고 체크하고 있다. 이어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토대로 관리대상물질은 노출기준 대비 30% 미만, 특별관리물질은 10% 미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황하원 프로는 "국소배기장치처럼 안전보건 설비가 설치되어도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100% 사라진다고 할 수 없기에, 작업자가 먼저 보호구 착용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개인보호구를 선정하는 것부터 지급·착용·유지보수를 필수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거나 관련 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성 질병은 당장 괜찮을지라도, 유해인자가 인체에 축적되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후에 큰 병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모든 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HS 참여 활동은 더욱 즐겁게!

현장의 유해·위험요소들은 언제나 작업장에 잠재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 관련 담당자가 현장 순회, 체크리스트 작성, 면담 과정을 거쳐도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황하원 프로는 적극적으로 직원 참여형 안전보건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전보건활동은 직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HS 파트는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안전(Safety)의 영어 철자를 따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러 EHS 활동이나 이벤트로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공유하고, 요청사항을 검토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전 메시지 동영상 제작 및 개시, 매월 EHS 업무에 기여한 직원에게 시상하는 'EHS Award' 개최, EHS 관련 퀴즈 대회 'EHS 골든벨'을 진행한다. 직원들이 잠재된 유해·위험을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방법 및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활동은 'EHS 신문고'다. 이는 현장 내 유해·위험요소 발견 시 누구나 쉽고 빠른 제보를 돕는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다.

"해마다 30건 이상의 카카오톡으로 제보가 들어옵니다. 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위험요소는 현장 내 설비 파손 및 문제점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행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이 있다면 추가하여 개선합니다."

이 외에도 황하원 프로는 직원들이 직무스트레스, 심리 부담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연계하고 있다. 또 신체건강이 부족한 직원을 위해 건강증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심히 살필 줄 아는 황하원 프로의 시선은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무한동력이다.